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 패션 아이템에 나타난 색채 비교

이 은 숙

울산대학교 의류학전공 교수

The Color Comparison Expressed in Fashion Items of New Senior Generation between Korea and America

Eun-Sook Le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University of Ulsan

(2014. 5. 29. 접수; 2014. 6. 30. 수정; 2014. 7. 3. 채택)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color expressed in fashion items and color of new senior generation in America and Korea. For this study, the three brands were selected by country after examining new senior fashion brand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Korea, t-shirt, cardigan, jacket, coat, and pants were investigated in order.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blouse, sleeveless t-shirt, skirt, and one piece dress were investigated in order. In other words, Korea is characterized the practical and comfort features, the United States is characterized the practical and feminine modernity. Second, in the case of color, Korea is characterized Bk, YR, R, PB, G and the United States is characterized W, Y, YG, B, BG. In the case of tone, Korea is characterized dark greyish tone, light greyish tone, strong tone, vivid tone, deep tone, and light tone. In the United States, greyish tone, dull tone, soft tone, pale tone, bright tone, and dark tone were used. In the case of color by tone,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characterized R, RP, and PB in gorgeous tone. In the case of light tone,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characterized Y. In the case of plain tone, Korea is characterized Y and the United States is characterized B and G. In the case of dark tone, Korea is characterized R, Y, G, B and the United States is characterized P, R, and B. The results of the study is expected to be provide as forecasting dates of design planning for the new senior generation.

Key Words: Fashion items(패션아이템), Color(색상), Value(명도), Chroma(채도)

I. 서론

세계가 2000년대 들면서 삶의 질 향상, 의학의 발달, 복지제도의 확대, 출생율 감소 등의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들에 의해 고령화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실버세대에 대한 관

심 의 폭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 을 기점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넘 어서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 전 체인구의 14.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 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되고 2050년에는 전 체인구의 37.4%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

Corresponding author ; Eun-Sook Lee

Tel. +82-52-259-2843, Fax. +82-52-259-2843

E-mail : eunsook@ulsan.ac.kr

되고 있다(박주영, 유소이, 2014). 이는 사회의 중추적 연령층이 실버세대로 옮겨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소비시장의 핵심 소비자군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의 소비시장에서 주목할 점은 2010년을 전후로 출현한 시니어 세대는 언제나 존재해 온 시니어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 소비자군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새로운 소비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은퇴는 했지만 재력을 갖춘 50대 이상으로 산업화의 주역이자 대중 소비 시대를 관통해 온 세대로서 뉴시니어 세대(New senior generation)로 명명되고 있다. 뉴시니어 세대는 1955~1964년생으로 자식들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전통적인 실버세대와는 다르게 자신들만의 새로운 인생을 추구하며, 자기 중심적이고 감각지향적인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주택, 의료, 여행, 금융 분야 등 다방면의 시장에 관여를 하며 특히 패션시장에서 트렌드에 주목하며 젊은 마인드를 가진 동적인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패션시장은 새롭게 부상하는 뉴시니어 세대를 위한 상품개발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상품군 개발이 느리며 시즌별 패션트렌드를 반영한 스타일보다는 기존의 스타일이 지속되거나 젊은 층의 취향에 치우친 칼라배색이나 스타일 등의 상품으로 구성되는 양극화된 시장을 보이고 있다. 예로써 여성복에서는 정장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성복에서는 기존의 디자인이나 스타일의 한정된 아이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뉴시니어 패션은 다양한 가격대, 사이즈의 세분화, 포멀한 정장에서부터 활동적이며 편안한 옷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템과 다양한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가 소비하는 패션시장에서 보이는 경향들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뉴시니어 세대 혹은 시니어 세대의 패션과 관련된 연구들(김정실, 2006; 정삼호, 김수아, 2006, ; 남궁민지, 2007; 정삼호, 2009, 2011; 백민숙, 변미연, 2011; 여화선 외 3인, 2011; 정성지, 2014)은 시장현황 분석 혹은 마담복을 중심으로 한 패션디자인, 의복이미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색채가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색채와 관련된 연구가 미흡하여 한국과 미국 간의 전체적인 색채 경향을 비교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 세대를 타겟으로 생산된 상품을 중심으로 패션 아이템의 경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아이টে들에서 나타난 색채 경향을 비교해보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 세대가 소비하는 패션 아이템과 색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뉴시니어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색채배색과 아이템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 세대의 특징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현재의 추이로 볼 때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총인구의 20.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한국은 2000년, UN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으며, 향후 2018년에는 14.8%가 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그 속도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고용복지통계과, 2007). 한국의 시니어 산업은 2010년 기준 33조원이던 시장규모가 2020년 125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니어 세대는 선진화로 인한 다양한 제도 및 인프라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성장에 따른 전통까지 목격하고 체험한 세대이다. 또한 그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은 전체 인구 대비 다소 높은 편이며, 특히 2009년 전후 경제위기 기간

중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육체관리 뿐 아니라 마음관리에도 주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뉴시니어 세대의 특징은 사회적 활동을 위한 자신의 체력과 활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확신하며 사회·심리적 위로의 시선보다는 스스로 경제·실리적 혜택 및 안정을 추구하기도 한다. 또한 급속한 선진화와 문화적 풍요를 만끽한 세대인 만큼 부유층 뉴시니어 세대를 제외한 상당수 뉴시니어 세대들이 은퇴 후 금전자원 축소와 증대된 문화욕구 간 괴리로 인한 갈등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이므로 미국, 일본, 중국 등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뉴시니어 관련 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나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이미 1942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미국의 시니어 층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는 소비시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차 대전 이후 탄생한 이들은 막강한 경제력과 젊은 층 못지않은 정신·육체적 건강 덕분에 이전의 노인층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갖는다. 미국의 뉴시니어 세대는 연령계층 중 평균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그룹에 속해 있어 일반적으로 보유 자산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남궁 민지(2007)에 따르면 현재 미국 시니어 세대들은 미국사회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소비를 이끌었다고 하였다. 또한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유행과 스타일을 주도해 온 세대이며 높은 소비성향으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2.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 패션의 특징

뉴시니어 세대는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지니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동을 하며 다져진 몸에 대한 신체 자신감과 젊음을 유지하려는 외적인 이미지에 적극성을 드러내고 있다(김이지, 2008). 그들의 패션스타일은 유행에 민감하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이 표현되는 스타일을 지향하는 경향이 이전의 시니어 세대와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

향은 뉴시니어 여성에 국한되어 나타나기 보다는 남성들도 예외는 아니며,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보여 외적 경쟁력을 갖추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들은 패션, 화장품, 식품, 운동기구, 여가활동, 사회활동 등 전방위로 다양하게 소비가 시도되고 있어 시장 규모를 산출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핵심 소비자로 부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그들을 위한 패션 소비시장은 전망이 밝고 큰 규모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골프복 또는 아웃도어룩, 디자인은 우수하나 사이즈가 없는 수입 브랜드들로 형성되어 오다가 최근에 이르러 (주)더베이직하우스의 디아체와 형지어패럴의 라젤로에 이어 제일모직과 LG 패션, 슈페리어 등 대형사들이 뉴시니어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동안 40세~50세 여성들이 의류구매에 소비한 금액이 약 308억달러로 20세~30세에 비해 약 두 배에 달하는 시장으로 발전되었으며(김이지, 2008), ‘치코스’와 ‘제이질’, ‘콜드워터크릭’ 등 뉴시니어 전문 브랜드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갭’과 ‘짐보리’, ‘오시코시’ 등 기존 브랜드들도 뉴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과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종전 시니어 웨어는 지나치게 비싸고 고급스러웠다면 최근 런칭되는 브랜드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활동적이며 편안한 옷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III. 연구방법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 문헌, 신문기사 등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 세대의 특성과 의류 산업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신문기사, 패션 관련 잡지, 패션 정보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 패션브랜드를 조사한 후 국가별 세 개의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미국의 뉴시니어 브랜드는 CHICO'S, J Jill, coldwatercreek이며, 한국의 뉴시니어 브랜드는 Madamesense, Madam4060, ragello 이다. 자료 수집은 각 브랜드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를 중

〈표 1〉 명도(V)와 채도(C)값을 통한 PCCS 톤의 분석기준

번호	구분	명도	채도	
1	비비드톤(v)	중명도(5, 6)	고채도(16~19)	
2	스트롱톤(s)	중명도(5, 6)	중고채도(11~15)	
3	페일톤(p)	고명도(8, 9)	저채도(1~5)	
4	라이트톤(lt)	고명도(7, 8)	중고채도(11~15)	
5	브라이트톤(b)	고명도(8, 9)	중채도(6~10)	
6	그레이시톤(g)	중명도(4, 5)	저채도(1~5)	
7	덜톤(d)	중명도(4, 5)	중채도(6~10)	
8	라이트그레이시톤(ltg)	중고명도(6, 7)	저채도(1~5)	
9	소프트톤(sf)	중고명도(6, 7)	중채도(6~10)	
10	다크그레이시톤(dkg)	저명도(2, 3)	저채도(1~5)	
11	다크톤(dk)	저명도(2, 3)	중채도(6~10)	
12	딥톤(dp)	저명도(3, 4)	중고채도(11~15)	
13	무채색	검정색(Bk)	저명도(1, 2)	0
		저명도회색(dG)	저명도(3, 4)	0
		중명도회색(mG)	중명도(5, 6)	0
		고명도회색(lG)	고명도(7, 8)	0
		흰색(W)	고명도(9)	0

심으로 수집하였으며, 최종 수집된 자료는 미국 1020장, 한국 974장으로 총 1994장이다. 수집된 자료는 아이템에 나타난 색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은령·이경희(2008), 김새봄·이은숙(2012), 박진영·이은숙(2012)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색채는 객관적 분석을 위해 수집된 사진 자료를 Adobe Photoshop CS3 프로그램으로 해상도 30으로 정리한 뒤, 사진 당 3회 추출한 RGB 값의 평균값을 색채변환 프로그램 Munsell Conversion - Version 4.01을 이용하여 변환된 HV/C 값으로 분석하였다. 색채는 Red(R), Yellow red(YR), Yellow(Y), Green yellow(GY), Green(G), Blue Green(BG), Blue(B), Purple blue(PB), Purple(P), Red purple(RP)의 10가지 색상(H)과 White(W), Black(Bk)의 총 12가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명도(V)는 1~9까지의 값을

1~3은 저명도, 4~6은 중명도, 7~9는 고명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채도(C)는 1~19까지의 값을 1~6까지의 값을 저채도, 7~13까지의 값을 중채도, 14~19까지의 값을 고채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명도(V)와 채도(C)값을 기준으로 PCCS의 12가지 톤과 무채색을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표 1>과 같다. 연구의 방법은 내용분석 방법과 SPSS 10.0을 사용한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 패션 아이템

<표 2> 패션 아이템

		관찰빈도(기대빈도), %		
		한국	미국	전체
아이 템	팬츠	265(253.5) 13.3	254(265.5) 12.7	519(519.0) 26.0
	티셔츠	228(181.2) 11.4	143(189.8) 7.2	371(371.0) 18.6
	블라우스	118(145.6) 5.9	180(152.4) 9.0	298(298.0) 14.9
	재킷	121(87.4) 6.1	58(91.6) 2.9	179(179.0) 9.0
	셔츠	34(73.8) 1.7	117(77.2) 5.9	151(151.0) 7.6
	원피스	29(54.7) 1.5	83(57.3) 4.2	112(112.0) 5.6
	가디건	53(48.4) 2.7	46(50.6) 2.3	99(99.0) 5.0
	스커트	21(41.5) 1.1	64(43.5) 3.2	85(85.0) 4.3
	슬리브 리스	3(37.6) 0.2	74(39.4) 3.7	77(77.0) 3.9
	점퍼	42(21.0) 2.1	1(22.0) 0.1	43(43.0) 2.2
	코트	38(18.6) 1.9	0(19.4) 0.0	38(38.0) 1.9
	베스트	22(10.7) 1.1	0(11.3) 0.0	22(22.0) 1.1
	전체	974(974.0) 48.8	1020(1020) 51.2	1994(1994.0) 100.0
	χ^2 -test	$\chi^2=312.352$ p-value=.000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 패션 아이템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은 팬츠(13.3%), 티셔츠(11.4%), 재킷(6.1%), 블라우스(5.9%), 가디건(2.7%), 점퍼(2.1%), 코트(1.9%), 셔츠(1.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미국은 팬츠(12.7%), 블라우스(9.0%), 티셔츠(7.0%), 셔츠(5.9%), 원피스(4.2%), 슬리브리스(3.7%), 스커트(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미국 모두 팬츠 아이템이 가장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한국은 아웃웨어 개념으로 재킷을, 이너웨어 개념으로 티셔츠를, 미국은 아웃웨어 아이템보다는 이너웨어 아이템이 우세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하의의 경우 팬츠가 부각되어 나타났으며, 상의는 티셔츠를 중심으로 재킷, 가디건, 점퍼, 코트 등의 아우터가 특징적으로 나타나 포멀한 느낌의 이미지가 강하며 외의류에 대한 아이템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하의의 경우 스커트가 부각되어 나타났으며, 상의는 블라우스, 셔츠를 중심으로 슬리브리스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정장류보다는 중의의 개념인 아이템들이 겉옷 아이템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 패션 아이템에 나타난 색채

(1)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 패션 아이템에 나타난 색상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 패션 아이템에 나타난 색상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조색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Bk(10.6%)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W(7.0%), PB(6.9%), YR(5.7%), R(5.5%), Y(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Bk(9.5%)과 W(9.4%)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PB(6.7%), Y(5.4%), GY(3.9%), B(3.4%), R(3.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모두 Bk과 W의 무채색과 PB의 유채색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한국은 YR, R, Y의 난색 계열이 많이 나타났으며, 미국은 Y, GY, B, R의 난색, 한색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보조색을 살펴보면 한국은 R(8.1%), W(7.1%), Bk와 Y(5.2%), PB(5.0%), YR(4.4%), YG(3.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W(7.5%), PB(6.7%), Bk(6.1%), R(5.6%), B(5.4%), YR(4.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조색의 경우 한국은 R, W, Y의 유채색과 Bk의 무채색을, 미국은 W, Bk의 무채색과 PB, R의 유채색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 아이템에서 보여지는 색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Bk, W 등의 무채색 아이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뉴시니어 세대는 젊음을 지향하고 실제 연령보다 인지 연령에 따른 소비추구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한 것과는 달리 모던하고 심플한 색상을 추구하면서 난색계열의 보조색을 사용하여 높은 명시성을 살린 아이템들이 선호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역시 Bk과 W를 중심으로 PB의 유채색이 나타났으며 남색과 한색의 보조색 등이 사용되어 한국에 비해 화려한 이미지가 강한 아이템들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 패션 아이템에 나타난 명도와 채도 비교

<표 3> 색상 비교

관찰빈도(기대빈도), %

		한국	미국	전체			한국	미국	전체
주 조 색	R	109(5.5) 5.5	66(89.5) 3.3	175(175.0) 8.8	보 조 색	R	39(30.0) 8.1	27(36.0) 5.6	66(66.0) 27
	YR	114(72.8) 5.7	35(76.2) 1.8	149(149.0) 7.5		YR	21(20.0) 4.4	23(24.0) 4.8	44(44.0) 9.2
	Y	103(103.1) 5.2	108(107.9) 5.4	211(211.0) 10.6		Y	25(19.5) 5.2	18(23.5) 3.8	43(43.0) 9.0
	GY	37(56.2) 1.9	78(58.8) 3.9	115(115.0) 5.8		YG	18(17.3) 3.8	20(20.7) 4.2	38(38.0) 7.9
	G	38(35.7) 1.9	35(37.3) 1.8	73(73.0) 3.7		G	14(13.2) 2.9	15(15.8) 3.1	29(29.0) 6.0
	BG	13(25.4) 0.7	39(26.6) 2.0	52(52.0) 2.6		BG	7(7.7) 1.5	10(9.3) 2.1	17(17.0) 3.5
	B	21(43.0) 1.1	67(45.0) 3.4	88(88.0) 4.4		B	4(13.6) .8	26(16.4) 5.4	30(30.0) 6.3
	PB	138(132.9) 6.9	134(139.1) 6.7	272(272.0) 13.6		PB	24(25.4) 5.0	32(30.6) 6.7	56(56.0) 11.7
	P	18(27.8) 0.9	39(29.2) 2.0	57(57.0) 2.9		P	1(6.4) .2	13(7.6) 2.7	14(14.0) 2.9
	RP	33(37.1) 1.7	43(38.9) 2.2	76(76.0) 3.8		RP	6(8.6) 1.3	13(10.4) 2.7	19(19.0) 4.0
	W	139(159.2) 7.0	187(166.8) 9.4	326(326.0) 16.3		W	34(31.8) 7.1	36(38.2) 7.5	70(70.0) 14.6
	Bk	211(195.4) 10.6	189(204.6) 9.5	400(400.0) 20.1		Bk	25(24.5) 5.2	29(29.5) 6.1	54(54.0) 11.3
	전체	974(974.0) 48.8	1020(1020) 51.2	1994(1994.0) 100.0		전체	218(100.0) 45.4	262(262.0) 54.6	480(480.0) 100.0
χ^2 -test	$\chi^2=120.748$ p-value=.000			χ^2 -test	$\chi^2=30.801$ p-value=.001				

<표 4> 명도 및 채도 비교

					관찰빈도(기대빈도), %				
		한국	미국	전체					
명도	고명도	441(410.8) 22.1	400(430.2) 20.1	841(841.0) 42.2	채도	고채도	735(749.3) 36.9	799(784.7) 40.1	1534(1534.0) 76.9
	중명도	280(263.8) 14.0	260(276.2) 13.0	540(540.0) 27.1		중채도	133(147.0) 6.7	168(154.0) 8.4	301(301.0) 15.1
	저명도	253(299.4) 12.7	360(313.6) 18.1	613(613.0) 30.7		저채도	106(77.7) 5.3	53(81.3) 2.7	159(159.0) 8.0
	전체	974(974.0) 48.8	1020(1020.0) 51.2	1994(1994.0) 100.0		전체	974(974.0) 48.8	1020(1020.0) 51.2	1994(1994.0) 100.0
χ^2 -test		$\chi^2=20.366$ p-value=.000			χ^2 -test		$\chi^2=23.358$ p-value=.000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 패션 아이템에 나타난 명도와 채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명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고명도(22.1%), 중명도(14.0%), 저명도(12.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고명도(20.1%), 저명도(18.1%), 중명도(13.0%)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고명도, 중명도가 부각되어 밝은 색채가 특징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미국은 고명도 외에 저명도의 사용 또한 많은 것으로 밝음과 어두움이 나타나는 대비적 명도가 특징적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채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고채도(36.9%), 중채도(6.7%), 저채도(5.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고채도(40.1%), 중채도(8.4%), 저채도(2.7%)의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모두 고채도의 선명한 색채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저채도의 색채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저채도의 색채가 나타나고 있어 채도의 사용폭이 비교적 넓은 편이라 할 수 있다.

(3)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 패션 아이템에 나타난 톤 비교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 패션 아이템에 나타난 톤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무채색을 제외한 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다크그레이시

(7.2%), 라이트그레이시(4.3%), 그레이시(3.6%), 다크(3.2%), 스트롱(2.5%), 비비드(2.1%) 등의 톤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다크그레이시(6.0%), 그레이시와 라이트그레이시(4.4%), 다크(3.6%), 페일(3.4%), 소프트(2.4%), 덜(2.2%) 등의 톤 순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모두 채도가 낮은 회색 기미가 포함된 그레이시 톤과 어두운 다크 톤이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 한국은 선명한 스트롱 톤과 비비드 톤이 많이 나타난 반면, 미국은 수수한 색조인 소프트 톤과 덜 톤이 많이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에 비해 다크그레이시와 라이트그레이시의 회색 기미가 많은 톤과 선명하고 화려한 스트롱 톤과 비비드 톤이 특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두운 색조에서는 깊이감이 느껴지는 딥 톤과 밝은 색조에서는 라이트 톤이 특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그레이시, 덜, 소프트 등의 수수한 색조가 특징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밝은 색조계열의 페일 톤과 브라이트 톤과 어두운 색조인 다크 톤이 특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 패션 아이템에 나타난 톤에 따른 색상 비교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 패션 아이템에 나타난 톤에 따른 색상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12

<표 5> 톤 비교

					관찰빈도(기대빈도), %				
		한국	미국	전체					
톤	비비드	41(24.9) 2.1	10(26.1) 0.5	51(51.0) 2.6	다크 그레이시	144(128.5) 7.2	119(134.5) 6.0	263(263.0) 13.2	
	스트롱	50(42.0) 2.5	36(44.0) 1.8	86(86.0) 4.3	다크	64(65.9) 3.2	71(69.1) 3.6	135(135.0) 6.8	
	페일	32(48.8) 1.6	68(51.2) 3.4	100(100.0) 5.0	딥	36(31.3) 1.8	28(32.7) 1.4	64(64.0) 3.2	
	라이트	6(4.4) 0.3	3(4.6) 0.2	9(9.0) 0.5	기 타	블랙	217(200.3) 10.9	193(209.7) 9.7	410(410.0) 20.6
	브라이트	16(19.5) 0.8	24(20.5) 1.2	40(40.0) 2.0		저명도 그레이	8(8.8) 0.4	10(9.2) 0.5	18(18.0) 0.9
	그레이시	72(78.2) 3.6	88(81.8) 4.4	160(160.0) 8.0		중명도 그레이	3(3.4) .02	4(3.6) 0.2	7(7.0) 0.4
	덜	36(39.1) 1.8	44(40.9) 2.2	80(80.0) 4.0		고명도 그레이	3(2.4) 0.2	2(2.6) 0.1	5(5.0) 0.3
	라이트 그레이시	85(84.0) 4.3	87(88.0) 4.4	172(172.0) 8.6		화이트	137(157.3) 6.9	185(164.7) 9.3	322(322.0) 16.1
	소프트	24(35.2) 1.2	48(36.8) 2.4	72(72.0) 3.6	전체	974(974.0) 48.8	1020(1020) 51.2	1994(1994.0) 100.0	
						χ^2 -test	$\chi^2=58.940$		p-value=.000

가지 톤을 크게 4가지 톤으로 정리하였다. 비비드 톤과 스트롱 톤은 화려한 톤으로, 페일 톤, 라이트, 브라이트 톤은 밝은 톤으로, 그레이시 톤, 덜 톤, 라이트그레이시 톤, 소프트 톤은 수수한 톤으로, 다크그레이시 톤과 다크 톤, 딥 톤은 어두운 톤으로 분류하였다. 톤에 따른 색상을 살펴보면 <표 6>과 같으며, 수수한 톤과 어두운 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화려한 톤과 밝은 톤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화려한 톤에서는 한국의 경우 R(48.2%), YR(6.6%), RP(5.8%), PB(2.9%) 등의 순으로, 미국의 경우 R(21.9%), RP(6.6%), PB(2.2%), YR과 G(1.5%)의 순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려한 톤은 한국과 미국 모두 R 계열의 색인 R과 RP, 그리고 B 계열의 색인 PB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비해 화려한 톤에서 YR이 많이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밝은 톤에서는 한국의 경우 Y(16.8%), YR(7.4%), GY(6.7%) 등이, 미국의 경우 Y(25.5%), GY(18.1%), BG(6.7%) 등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밝은 톤은 한국과 미국 모두 Y가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한국은 Y 계열의 색인 YR과 GY가, 미국은 BG, G, B 등의 B와 B 계열의 색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수한 톤에서는 한국의 경우 YR(12.2%), Y(11.2%), PB(6.0%) 등의 순으로, 미국의 경우 Y(12.8%), B(10.3%), GY(7.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노랑색 계열의 YR, Y, GY 등을 중심으로 그 외 PB가 사용되었고 미국은 Y 계열인 Y와 GY, B 계열인 B, BG, PB, G 계열인 GY, BG, G가 많이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수수한 톤에서는 한국은 YR, Y, PB, R과 G, RP가, 미국은 B, GY, BG, G, P가 부각되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수한

<표 6> 색상과 톤의 비교

관찰빈도(기대빈도), %

톤	색상	한국	미국	전체	톤	색상	한국	미국	전체
화려한톤	R	66(63.8) 48.2	30(32.2) 21.9	96(96.0) 70.1	수수한톤	R	14(11.7) 2.9	12(14.3) 2.5	26(26.0) 5.4
	YR	9(7.3) 6.6	2(3.7) 1.5	11(11.0) 8.0		YR	59(34.1) 12.2	17(41.9) 3.5	76(76.0) 15.7
	GY	1(0.7) 0.7	0(0.3) 0.0	1(1.0) 0.7		Y	54(52.0) 11.2	62(64.0) 12.8	116(116.0) 24.0
	G	2(2.7) 1.5	2(1.3) 1.5	4(4.0) 2.9		GY	15(22.9) 3.1	36(28.1) 7.4	51(51.0) 10.5
	PB	4(4.6) 2.9	3(2.4) 2.2	7(7.0) 5.1		G	14(16.1) 2.9	22(19.9) 4.5	36(36.0) 7.4
	P	1(0.7) 0.7	0(0.3) 0.0	1(1.0) 0.7		BG	6(14.3) 1.2	26(17.7) 5.4	32(32.0) 6.6
	RP	8(11.3) 5.8	9(5.7) 6.6	17(17.0) 12.4		B	11(27.3) 2.3	50(33.7) 10.3	61(61.0) 12.6
	전체	91(91.0) 66.4	46(46.0) 33.6	137(137.0) 100.0		PB	29(22.9) 6.0	22(28.1) 4.5	51(51.0) 10.5
						P	4(6.7) 0.8	11(8.3) 2.3	15(15.0) 3.1
						RP	11(9.0) 2.3	9(11.0) 1.9	20(20.0) 4.1
				전체	217(217.0) 44.8	267(267.0) 55.2	484(484.0) 100.0		
χ^2 -test		$\chi^2=6.025$ p-value=.420			χ^2 -test		$\chi^2=71.804$ p-value=.000		
박아토톤	R	1(0.4) 0.7	0(0.6) 0.0	1(1.0) 0.7	어두운톤	R	27(26.9) 5.8	24(24.1) 5.2	51(51.0) 11.0
	YR	11(6.2) 7.4	6(10.8) 4.0	17(17.0) 11.4		YR	33(22.2) 7.1	9(19.8) 1.9	42(42.0) 9.1
	Y	25(22.8) 16.8	38(40.2) 25.5	63(63.0) 42.3		Y	19(14.3) 4.1	8(12.7) 1.7	27(27.0) 5.8
	GY	10(13.4) 6.7	27(23.6) 18.1	37(37.0) 24.8		GY	10(7.9) 2.2	5(7.1) 1.1	15(15.0) 3.2
	G	2(2.9) 1.3	6(5.1) 4.0	8(8.0) 5.4		G	16(9.0) 3.5	1(8.0) 0.2	17(17.0) 3.7
	BG	2(4.3) 1.3	10(7.7) 6.7	12(12.0) 8.1		BG	4(3.2) 0.9	2(2.8) 0.4	6(6.0) 1.3
	B	1(2.2) 0.7	5(3.8) 3.4	6(6.0) 4.0		B	8(10.0) 1.7	11(9.0) 2.4	19(19.0) 4.1
	PB	0(0.4) 0.0	1(0.6) 0.7	1(1.0) 0.7		PB	103(110.9) 22.3	107(99.1) 23.2	210(210.0) 45.5
	P	0(0.4) 0.0	1(0.6) 0.7	1(1.0) 0.7		P	12(20.6) 2.6	27(18.4) 5.8	39(39.0) 8.4
	RP	2(1.1) 1.3	1(1.9) 0.7	3(3.0) 2.0		RP	12(19.0) 2.6	24(17.0) 5.2	36(36.0) 7.8
	전체	54(54.0) 36.2	95(95.0) 63.8	149(149.0) 100.0		전체	244(244.0) 52.8	218(218.0) 47.2	462(462.0) 100.0
χ^2 -test		$\chi^2=15.164$ p-value=.087			χ^2 -test		$\chi^2=42.933$ p-value=.000		

톤에서 한국은 미국에 비해 Y 계열의 색상이, 미국은 B와 G 계열의 색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어두운 톤에서는 한국의 경우 PB(22.3%), YR(7.1%), R(5.8%) 등의 순으로 나타나 R, Y, G, B 계열까지의 색상이 특징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PB(23.2%), P(5.8%), R과 RP(5.2%) 등의 순으로 나타나 P, R, B 계열의 색상이 특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두운 톤은 한국과 미국 모두 PB가 많이 사용되었고 난색 계열의 색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난색 중에서 R, YR, Y가, 미국은 P, RP, R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 패션 아이템과 아이템에 나타난 색채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 패션 아이템은 한국은 티셔츠를 중심으로 재킷, 가디건, 점퍼, 코트 등의 아우터가 중심이 된 상의와 팬츠 하의가 특징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은 블라우스, 셔츠를 중심으로 슬리브리스의 상의와 스커트 하의, 그리고 원피스 드레스가 특징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뉴시니어 패션 아이템은 한국의 경우 포멀한 스타일의 아이템들이 겹옷으로 구성되어 정장복 아이템 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여성스러움이 돋보이는 블라우스, 셔츠, 슬리브리스, 그리고 스커트, 원피스 드레스 아이템을 중심으로 중의가 겹옷의 기능을 하면서 포멀한 이미지보다는 실용적이고 편안한 스타일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한국과 미국의 뉴시니어 패션 아이템에 나타난 색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무채색에서는 Bk, 유채색에서는 YR, R, PB, G으로高明도와 증명도에 저채도가 특징적이었으며, 미국은 무채색에서는 W, 유채색에서는 Y, YG, B, BG로 저명도에 고채도와 중채도가 특징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톤

은 한국의 경우 미국에 비해 회색 기미의 다크 그레이시 톤과 라이트그레이시 톤, 선명하고 화려한 스트롱 톤과 비비드 톤, 그리고 깊이감이 느껴지는 딥 톤, 경쾌한 느낌의 라이트 톤이 특징적으로 사용되어 중후한 이미지와 더불어 선명하고 화려한 이미지의 대비적 아이템들로 구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그레이시 톤, 덜 톤, 소프트 톤의 수수한 색조와 페일 톤과 브라이트 톤의 밝은 색조, 그리고 어두운 색조인 다크 톤이 특징적으로 사용되어 스트롱 톤과 비비드 톤 영역의 아이템들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톤에 따른 색상은 화려한 톤의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 R 계열의 R과 RP, 그리고 B 계열의 PB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밝은 톤의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 Y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한국은 Y 계열의 색이, 미국은 B 계열의 색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수한 톤의 경우 한국은 미국에 비해 Y 계열의 색상, 미국은 B와 G 계열의 색상이 특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두운 톤에서는 한국의 경우 R, Y, G, B 계열까지의 색상이, 미국의 경우 P, R, B 계열의 색상이 특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두 나라의 뉴시니어 세대의 패션 아이템과 색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피부색이 다르고 다른 문화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은퇴 후에도 지속적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뉴시니어 세대들이 과연 어떤 아이템과 색채를 선호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심미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을 조화시킨 새로운 디자인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향후 그들을 위한 아이템 개발과 색채배색 등의 방향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고용복지통계과. (2007). *인구구조에 관한 보고서*. 1-7.

- 김새봄, 이은숙. (2012). 현대 남성의 패션이미지 연출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4(3), 93-109.
- 김유덕, 김미영. (2004). 중노년층 여성의 의복추구 이미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6), 746-757.
- 김정실. (2006). *뉴실버 여성소비자의 지각연령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연구 -라이프스타일과 쇼핑 성향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궁민지. (2007). *시니어 패션 디자인 분석 및 선택* 호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영, 유소이. (2014).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재무 걱정: 한국, 중국, 미국 비교. *소비문화연구*, 17(2), 183-204.
- 박진영, 이은숙. (2012). 뉴스앵커의 착용의상 색채를 통해 본 방송국 이미지 분석-KBS, MBC, SBS 방송국 비교.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4(2), 165-172.
- 백민숙, 변미연. (2011). 뉴실버 세대 패션브랜드에 관한 연구-내셔널 브랜드 웨트치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2), 212-221.
- 김이지. (2008. 5. 19). 브라보! 젊은 시니어. 헤럴드 경제자료검색일 14. 2. 7 자료출처 <http://sukwha73.blog.me/60051328313>
- 여화선 외 3인. (2011). 뉴실버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의류브랜드의 색상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1), 295-303.
- 이은령, 이경희. (2008). *패션 디자인 플러스 발상*. 서울: 교문사.
- 정삼호, 김수아. (2006). 실버의류 기성복업체의 실태조사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6(2), 15-32.
- 정삼호. (2009). 시니어세대의 연령에 따른 실내복 디자인 선호도 및 구매행동 연구-50대 이상 중·노년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59(4), 143-154.
- 정삼호. (2011). 시니어 세대를 위한 프리미엄 디자인 개발: 하이브리드 안 커버링 복합사직물을 활용하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3(1), 47-57.
- 정성지. (2014). 중년 남녀 소비자의 선호 의복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6(1), 1-13.